



사업 결과

‘2011/2012 몽골-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은 한-몽골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계를 증진시키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복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유네스코 후원기관인 몽골의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한국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협력으로 몽골은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무형유산 보유자들을 진흥하였으며,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였다. 본 사업은 몽골의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원하고 디지털화하고, 보급하는 활동의 모범사례로서 초석을 쌓는 역할을 하였다. 자기 테이프의 복원과 디지털화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적 분야의 역량 강화는 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이 몽골 내의 다른 기관과 단체들에 소장되어 있는 노후화된 자기 테이프들을 복구하고 디지털화하는 지속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무형유산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력을 위해서는 무형유산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